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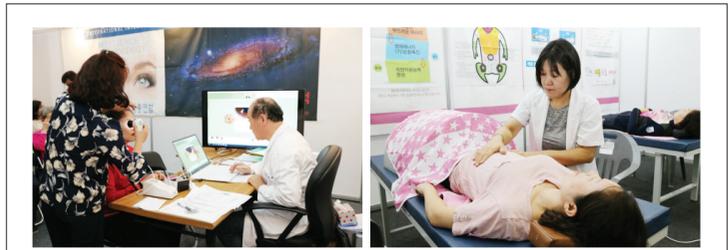
해남군-풀무원, 동물복지 유기한우 공급확대 업무협약 체결

안정적 유기한우 생산·공급체계 구축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지역 유기한우 위상 고취·소비 수요 선제적 선점 기대”

해남군과 영농조합법인 팥밭유기한우, ㈜풀무원은 지난 26일 동물복지 유기한우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과 올바른 식문화 선도를 위해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동물복지 유기한우의 공급 확대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협약에 따라 해남군은 동물복지 유기한우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하고, 영농조합법인 팥밭유기한우는 동물복지 유기한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풀무원은 동물복지 유기한우의 사용을 확대하고 소비활성화 홍보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협약 체결 후 ㈜풀무원에서는 10월부

터 영유아 급식시장에 동물복지 유기한우를 사용하는 등 2024년까지 24%이상 점유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해남군에서는 13농가에서 800여두의 동물복지 유기한우(유기한우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동시 취득)를 사육하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곽준길 부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지역 유기한우의 위상을 고취하고, 소비 수요를 선제적으로 선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군 ESG 실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내일 장흥서 팡파르

2022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9월 30일 장흥군에서 막을 올린다. ‘사람중심 통합의학, 장흥에서 세상으로’란 주제로 펼쳐지는 박람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개최된다. 장흥군은 3년만에 박람회가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통합의학 프로그램, 생약초·약재 전시, 학술행사 등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해 발열관리와 소

마사지 등의 체험이 진행된다. 홍채검진은 인체의 블랙박스라는 홍채를 특수장비로 촬영해 3분 만에 각종 질병의 유무, 신체 건강 정도를 파악하는 진료 체험이다. 원광대학교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는 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 운영(뜸, 온·냉 치료, 약초), 통합의료 협진(관절염, 류마티스 환자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압과 통합의학’, ‘치매와 생활습관 의학’

내일부터 10월 4일까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서 개최 김성 군수 “통합의학 한 자리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기회”

독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행사 운영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전시관은 주제관, 통합의학관, 보완대체의학관, 힐링테라피관, 의료산업·특산물관 매관 등이 운영된다. 주제관은 박람회 히스토리 영상 상영, 생약초 전시, 웨어러블 존 등으로 구성됐다. 통합의학관에는 무릎 관절 진단, 피부질환 치료체험, 혈관노화도 검사, 침·뜸 체험 등이 마련됐다. 보완대체의학관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홍채검진과 배꼽호흡테라피, 발

등 전문가 강연과, ‘만성 난치성질환의 신체 물리학과 마음심리의 통합적 치료’를 주제로 한 학술행사도 열린다. 부대행사로 청소년댄스, 시군 신체활동 경연대회, 한의사, 한약사, 작업치료사, 미술심리치료사 직업체험이 마련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통해 통합의학을 한 자리에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체험을 통해 통합의학을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산불 없는 녹색지역 강진군, 산불전문진화대 모집 10월 5일까지 산불진화대 9명·산불감시원 44명 모집

강진군은 가을철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9명, 산불감시원 44명 총 53명을 모집한다. 근무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모집 자격은 공고일 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로 시행기관에서 정한 선발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산불전문예방대원 응모 희망자는 강진군청 해양산림과로, 산불감시원 응모 희망자는 관할 읍면사무소로 채용감사서 등 필수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해야 한다. 강진=김영일 기자

미국진 해양산림과장은 “산불은 주로 노약자의 소각행위나 입산자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산불진화대와 감시원들의 예찰활동과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모집으로 가을철 산불대응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여 청정강진군 산림을 산불로부터 계속해서 지켜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가을밤은 완도 보길도에서!’ 고산야행·풍류공연 등 진행 내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료 개방

완도군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플레이 아일랜드(play island) 완도’를 주제로 완도읍과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 등에서 ‘2022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보길도에서는 ‘풍류를 플레이하다’라는 주제로 세연정에서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고산 야행(孤山 夜行)’과 ‘풍류 문화 공연’, ‘보길도 미식회’, ‘보길도 윤스테이’ 등이 진행된다. 세연정은 고산 윤선도 선생이 직접 조성한 조선시대 대표 정원이 부용동 정원에 자리하고 있으며, 자연적인 계류를 돌돌로 막아 연못(세연정)을 만들고 연못 사이에 정자(세연정)가 있다. ‘세연’이란 ‘주변 경관이 물에 씻어듯 깨끗하여 기분이 상쾌해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행사 기간 중 보길도 세연정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고산 야행’은 18시부터 22시까지 야간 조명이 밝혀지면 고즈넉한 등 낮에 보는 모습과는 색다른 모습의 세연정을 감상할 수 있으며, 동백 숲에는 포토 존도 마련했다. 10월 8일에는 세연정에 앉아 풍류를 즐길 수 있도록 거문고, 대금, 아쟁 장구 등 국악 공연을 준비했다. 또한 주민들의 재능 기부로 기타, 색소폰, 중학생 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길도 미식회’는 보길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 기간 중 매일 18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며, 보길도의 특산물인 전복을 활용한 전복해산물 떡볶이, 탕수육, 김밥 등을 맛보고 황칠막걸리도 시음할 수 있다. ‘보길도 윤스테이’는 볼거리를 모집하여 고산야행, 미식회 등을 SNS에 소개하여 행사 프로그램 및 보길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미스&미스터 진도개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금상부터 입선까지 총 50작품 선정...시상금 총 770만원 지급 예정

진도군이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개를 소재로 한 ‘미스&미스터 진도개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앞서 군은 지난 8월 진도개 우수성 콘텐츠 발굴과 홍보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했다. 최종 심사는 주제의 창의성, 표현성, 완성도 등을 고려해 선발했고, 진도개 홍보용 사진으로 활용할 성견, 강아지 등의 다양한 사진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훈격:진도군수)과 시상

금, ▲금상 1점 100만원, ▲은상 2점 각 50만원, ▲동상 3점 각 30만원, ▲장려 4점 각 20만원, ▲입선 40점 각 10만원 등 최종 50점의 작품에 총 77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본선 심사 결과 ▲금상 허주민(진도), ▲은상 강정학(진도), 이화성(진도), ▲동상 정중호(진도), 김경숙(진도), 박은초(광주), ▲장려상 정용석(해남), 이명재(부산), 김대연(진도), 홍성숙(진도) 등 총 10명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진도=조상용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